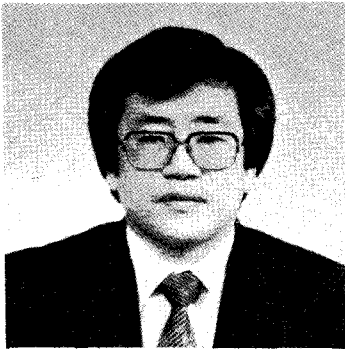


양계산업과 생산자 자조금 제도



김 병 호

농경연 농업유통 연구실장

국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식품의 소비구조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여 그간 곡물위주에서 점차 동물성식품으로 변화함에 따라 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축산업의 위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축산물 소비량을 보면 1962년에 7만1톤에서 1984년에는 56만4천으로 늘어났으며, 동기간에 닭고기는 1만6천톤에서 11만8천톤으로 거의 7.3배가 신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닭고기의 소비추세는 향후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소비자들의 영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의 양계산업의 개발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국내양계산업은 70년대 이후 사육마리수와 사육규모 확대로 생산기반이 크게 조성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양계산업이 국가 전체 산업속에서 주요 식품인 육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안정적인 정착,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산자들이 행하여 왔던 기존 경영방식, 즉 사육규모의 증가가 곧 소득의 확대를 초래하여 양계산업의 주요 계산물들의 유통, 소비면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경영형태를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양계산업발전은 생산자인 양계인이 얼마만큼 협조적으로 계산물의 유통, 소비면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계산물

의 유통질서가 혼란하고 공공적인 유통시설의 부족시에는 정부측이 참여하여 개선할 수 있지만 특정품목에 대한 수요의 창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한편 우리의 농업수준도 이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농단계에 진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과 가격 및 소득보장까지도 정부가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생산자의 기대심리에도 문제가 있다.

어느 산업이든간에 그 산업의 주인은 바로 생산자 자신들이다. 산업속의 주인인 생산자들이 해당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구책을 찾아 공동 노력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매우 당연한 일임에 틀림없다.

특정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이 앞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침체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계산물의 시장수요 유지 및 개발, 홍보활동은 장차 양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전 양계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일부 생산자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 서로의 공동이익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익집단 또는 이익단체와 같은 공동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구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공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이 무리없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자금은 수익자 부담과 수익에 비례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이익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되 무임승차(free riding)가 없이 공평하게 기여되도록 함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타당하다고 알려진 것이 생산자 자조금제도(Check off System)이다. 이는 생산자가 스스로 해당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self-imposed tax) 개념이다.

생산자 자조금이 부담자인 생산자 스스로의 이

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산업전체의 자금이며,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그 효과가 농산물 유통, 소비 부문 개선에 크게 효과가 나타나고 해당품목 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자조금의 사용으로 해당 산업의 구성 각 부문과 개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공동 관심사를 해결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상업농 체제에서의 중요한 과제인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유지, 연구 사업 등을 통한 사용용도개발, 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촉진에 적극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양계산업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생산이후의 문제는 마치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생산이후의 문제가 생산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양계산업발전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부문발전에도 달려 있으며, 양계산업의 주인은 계산물 생산자이고 산업발전은 생산자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그 활동자금은 마땅히 생산자인 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계산물에 대한 소비양상은 어떠한가? 아직도 전통적인 조리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당히 계절성을 띠고 있다. 소비양상이 계절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생산 및 가격구조는 불안정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이고 계절성을 따 소비패턴을 안정시킴으로써 양계산업이 안정된다면 이러한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들 모두의 일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부담하는 자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한국의 양계산업에 자조금제도가 도입, 그 자금이 양계산업 문제해결에 적절히 사용된다면 양계산업안정화에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된다. □